

부산, 전국 첫 ‘AI 감사행정’ 구축… 위험요인 미리 찾는다

지자체 감사위 첫 AI 지원사업 선정
국비 3.7억 확보 폐쇄망 체계 구축
감사자료 분석해 점검 대상 탐지
유사사례·보고서 초안 등 추천
반복업무 줄여 예방감사로 전환

부산시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감사행정 혁신에 본격 착수했다. 시는 부산라이즈혁신원에서 ‘AI 기반 스마트 감사행정 지원 시스템’ 구축 착수보고회를 열고 사업 추진 계획과 시스템 구축 방향, 단계별 추진 일정 등을 공유하며 디지털 기반 감사체계 마련에 나섰다.

이날 보고회에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과 부산시 관계자들이 참석해 AI를 감사업무에 적용하기 위한 세부 추진 전략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감사 전 과정에 AI를 접목하는 시스템 구성과 운영 방안, 향후 활용 계획 등을



부산시청 전경.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부산시는 보안이 강화된 폐쇄망 환경에서 감사 업무 전반에 AI를 활용해 행정 효율성과 감사 품질을 동시에 높인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공공부문 AI 서비스 지원사업’ 공모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감사위원회 가운데 처음으로 선정돼 국비 3억 7000만원을 확보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구축되는 시스템은

방대한 감사자료를 통합 분석하고 감사 대상 가운데 점검이 필요한 부분을 사전에 찾아내는 기능을 갖춘다. 과거 유사 감사 사례를 자동으로 제시하는 것은 물론 감사보고서 초안 작성과 처분 기준 추천 기능도 지원해 감사 업무의 정확성과 일관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 외부망과 분리된 폐쇄형 AI 모델을 활용해 감사자료에 포함된 민감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면서도 분석 속도를

높인다. 반복적인 자료 검토 업무를 줄여 감사관이 현장 확인과 제도 개선 방안 마련 등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부산시는 AI 기반 감사 시스템이 단순한 업무 자동화를 넘어 예방 중심의 감사체계를 구축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축적된 감사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활용에 위험 요인을 조기에 파악하고 행정의 신뢰성과 시민이 체감하는 공공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윤희연 부산시 감사위원장은 착수보고회에서 “이번 사업은 감사행정에 AI를 접목해 감사의 예방 기능을 강화하는 전국 첫 시도”며 “시민 생활과 직결된 문제를 신속히 개선하고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의령군

‘뽕뽕버스’ AI 교통모델로 진화

의령군이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 특화 AI 기반 수요맞춤형 교통모델’ 실증사업에 부림면을 대상으로 신청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군은 올해 3월 경남 최초로 도입한 버스완전공영제 ‘뽕뽕버스’에 AI 기술을 접목해 농촌형 교통 체계를 한 단계 끌어올릴 계획이다. 군은 심사 과정에서 공영버스와 수요응답형 교통(DRT)을 연계한 교통모델,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왕진버스 등 생활서비스를 접목한 사업계획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뽕뽕버스는 ‘요금은 0원, 행복은 뽕뽕’이라는 뜻을 담은 무료 공영 농어촌버스다.

/의령(경남)=이도식 기자

부산시교육청

학생 쇼츠 영상 공모전 개최

부산시교육청이 학생들이 직접 영상을 제작해 부산교육의 매력을 알리는 ‘2026 부산학생 쇼츠(Shorts) 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공모 주제를 기존 2개에서 3개로 늘렸다. ▲부산교육 홍보 영상 ▲학교 생활 관련 공익광고 ▲우리가 꿈꾸는 학교 가운데 하나를 골라 춤, 노래, 연기, 애니메이션 등 자유로운 형식의 1분 이내 세로형 쇼츠 영상을 제출하면 된다. 지난해에는 학교 소개와 부산교육 이미지 홍보 2개 주제로 운영했다. 부산 지역 학생이면 누구나 개인 또는 5인 이하 팀으로 참여할 수 있다.

/부산=이도식 기자

대구·경북 이주배경학생 2만명 육박

학생 줄어도 이주배경 비중 확대
대구 5년 27.4% 경북 9년 두 배
경북 학생 20명 중 1명꼴 이주배경

학령인구 감소가 이어지는 대구·경북에서 이주배경학생은 꾸준히 늘어나며 교육 현장의 구성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경북은 전체 학생 20명 가운데 1명 이상이 이주배경학생으로 집계됐고 대구역시 최근 5년간 증가세를 이어가면서 다문화 교육 지원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2025년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4월 1일 기준 대구의 이주배경학생은 6553명으로 전체 학생의 2.8%를 차지했다. 경북은 1만3196명으로 전체 학생의 5.5%를 기록했다. 대구와 경북을 합한 이주배경학생은 1만9749명에 달했다.

학생 수는 감소세를 이어갔다. 대구

는 올해 학생 수가 23만4315명으로 지난해보다 3283명 줄었고 경북도 23만8278명으로 4688명 감소했다. 학령인구 감소가 계속되는 가운데 이주배경학생은 꾸준히 늘어나며 학교 구성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확대하고 있다.

대구의 이주배경학생은 2021년 5145명에서 올해 6553명으로 1408명 늘어 27.4% 증가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생이 3902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학생 1598명, 고등학생 1040명 순으로 집계됐다.

경북은 증가 폭이 더욱 두드러졌다. 이주배경학생은 2016년 6586명에서 올해 1만3196명으로 약 두 배 늘었다. 올해 기준 국내 출생 학생이 1만98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외국인가정 학생 1754명과 중도입국 학생 455명이 뒤를 이었다.

/대구(경북)=김준한 기자 kih9@

진주, 천연물소재 허브 구축 본격화

중투심 통과 총사업비 463억 투입

진주시는 미래 전략사업인 ‘천연물소재 전주기 표준화 허브 구축사업’이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중앙투자 심사를 최종 통과하면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게 됐다. 시는 올해 하반기 설계에 착수해 2028년 상반기 착공,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에는 총사업비 463억원이 투입된다. 진주시 문산읍 생물산업 전문농공단지애 연면적 5867㎡ 규모의 지하 1층·지상 3층 허브를 조성한다. 시설에는 ▲제조공정 표준화실 ▲분석·검증지원실 ▲데이터베이스(DB) 플랫폼 운영실 등이 들어서며 (재)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이 운영을 맡아 기업의 연구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진주시는 허브를 2027년 준공 예정인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와 그린바이오



천연물허브 배치도.

/진주시

산업 육성 지구, 제2 바이오 특화 농공단지와 연계해 창업부터 연구개발, 표준화, 생산, 사업화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업 성장 지원과 우수기업 유치,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진주(경남)=이도식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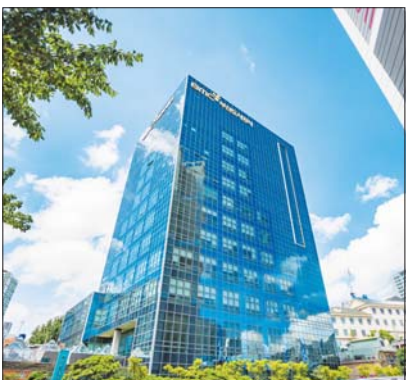
남부민폴리페 순환임대 60세대 모집

부산도시공사, 정비이주민 주거 지원

부산도시공사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으로 이주가 필요한 주민을 위해 ‘남부민폴리페 순환임대주택’ 입주자를 7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상시 모집한다. 순환임대주택은 재개발·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으로 철거가 예정된 정비구역 주민이 공사 기간 임시로 거주할 공공주택이다.

모집 대상은 부산 서구 해운대로 23에 위치한 남부민폴리페 아파트로, 36㎡형 27세대와 51㎡형 33세대 등 총 60세대다. 남부민폴리페는 총 782세대 규모의 공공임대 아파트로, 부산도시공사가 관리·운영하고 있다.

이번 모집에서는 입주 소득 기준을 기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에서 100% 이하로 완화했다. 지난해에도 하반기 모집에서 자격 완화를 시도한 바 있으며 올해 더 많은 정비사업 이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넓혔다.



부산도시공사.

신청 대상은 정비사업으로 이주가 필요한 주민 가운데 소득 기준 등을 충족하는 무주택 세입자와 해당 주택 외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주택 소유자이며 자격심사를 거쳐 입주자를 선정한다.

신창호 부산도시공사 사장은 “순환임대주택은 정비사업 이주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중요한 공공주택 정책”이라며 “시민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이도식 기자

영덕, 스포츠클라이밍 생활체육으로 안착

전문강사 지도 단계별 교육 진행

영덕군(군수 조주홍)이 군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문화 확산을 위해 운영 중인 스포츠클라이밍 교실이 새로운 생활체육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며 참가자들의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내고 있다.

지난 4월 첫 수업을 시작한 스포츠클라이밍 교실은 평소 쉽게 접하기 어려운 익스트림 스포츠를 생활체육으로 접목해 군민들에게 색다른 운동 경험과 건강한 활력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프로그램은 전문 강사의 체계적인 지도 아래 기초 이론과 장비 사용법, 안전수칙, 기본 동작부터 실전 등반 기술까지 참가자의 수준에 맞춘 단계별 교육으로 진행돼 초보자도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스포츠클라이밍은 전신 근육을 고르게 사용하는 대표적인 복합 운동으로,

평소 사용하지 않던 근육까지 자극해 근력과 균형 감각을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유연성과 심폐지구력 강화에도 효과적인 생활 스포츠로 평가받고 있다. 목표 지점을 향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며 오르는 과정에서 집중력과 자신감을 높이고 성취감까지 얻을 수 있어 남녀노소 모두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영덕군은 생활체육 저변 확대와 군민 건강증진을 위해 다양한 종목을 지속적으로 발굴·운영하며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체육 환경 조성에도 힘을 쏟고 있다.

조주홍 영덕군수는 “군민들이 일상 속 스트레스를 건강하게 해소하고 새로운 취미를 통해 삶의 활력을 얻을 수 있도록 남은 운영 기간에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며 “앞으로도 군민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영덕(경북)=손기섭 기자 gbnews8082@

(재)경산문화관광재단

가족 사랑 담은 뮤지컬 ‘구름뽕’

어린이 관객이 공연에 직접 참여하는 가족 뮤지컬 ‘구름뽕’이 오는 25일 경산시민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린다. (재)경산문화관광재단(이사장 조현일)은 이날 오전 11시와 오후 2시 두 차례 공연을 마련한다. 작품은 누적 판매 40만 부를 넘긴 동명 동화를 원작으로 가족 간 사랑과 배려를 어린이의 눈높이에서 풀어낸다. 공연 중에는 관객이 배우와 함께 뽕 반죽 동작을 따라 하는 참여형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공연이 끝난 뒤에는 배우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는 시간도 마련돼 가족 단위 관람객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경산=김준한 기자 kih9@

경북교육청

사이버독도학교 3만명 수료 돌파

경북교육청은 사이버독도학교가 개교 5주년을 맞아 누적 방문자 300만 명과 수료자 3만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사이버독도학교는 학생과 일반인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독도교육을 받을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독도교실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외국인 회원은 402명이며 이 가운데 142명이 교육과정을 수료했다. 베트남과 미국 등 해외 이용자들의 참여도 이어지고 있다. 경북교육청은 메타버스와 AR 콘텐츠, 교수학습자료 ‘월간 독도’ 등을 활용해 독도교육 콘텐츠를 확대하고 있으며, 올해는 ‘독도 지식 썰기’와 함께 독도 수업하기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경북=김준한 기자 kih9@